다산포럼

영웅의 시대는 갔다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에디스 해밀턴의 '신화'가 취합한 영웅들 중 단연 우뚝한 인물은 아테네 왕 테세우스다. 가령 헤라클레스가 종종 충동적이고 쉽게 감상에 젖기도 하는 반면, 테세우스는 전사의 용맹성에다 지적인 신중함과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함께 지녔던 영웅이었다. 그는 신들에 농락되거나 스스로의 성정을 못 이겨 이모저모의 비극을 겪었던 여타 영웅들과 달랐으니, 많은 경우 그의 분노는 트로이 장군 헥토르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 불의(不義) 전반을 향했다.

테세우스의 인간적 면모와 식견은 테베 왕 크레온이 아르고스 다섯 적장의 장례를 거부했을 때, 제3자였던 그를 찾아온 크레온의 전령에게 했던 말에서 잘 드러난다. "자네가 아테네의 주인을 찾아 나를 보러 왔다면, 번지수가 틀렸네. 자네는 테베가 시류에 요동하는 무지한 군중이 아닌 한 사람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을 자랑하네만, 아테네는 시민이 주인인 자유의 도시일세. 여기선 누구나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며 함께 법을 만들고 모두가 그 법에 구속된다네. 독재자보다 국가에 더 해악적인 적(敵)은 없는 법일세. 그러니 크레온에게 전하게.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으며 단지 죽은 자를 땅에 묻어 하늘의 정의를 실현하려 할 뿐이라고."(에우리피데스, '탄원하는 여인들', 축약 의역)

민주주의를 위한 토양

먼 훗날, 정치적 보수주의자 토머스 칼라일이 '인류 역사는 그 근본에서 영웅들의 전기'라고 말했을 때('영웅들과 영웅숭배에 관하여'), 그가 여러 분야를 두루 살펴 선정한 10여 명의 영웅들은 어쩌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류사에 긴 족적을 남긴 테세우스들이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은 신들의 간섭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들의 부단한 개입이 없었다면 애초에 영웅으로 탄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어쩌면 신이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은 인간이 마음대로-오욕칠정에 따라-행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일 텐데, 문제는 선행이든 악행이든, 개인의 행위는 당사자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국민의 이름으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의 선택이 미치는 파장은 넓고도 깊다. 어린아이의 손에 망치를 쥐여 주면 모든 것을 못으로 보며 달려들듯이, 본래 인간이란 인식과 윤리 모두에서 불완전한 존재이다. 따라서 현명한 지도자는 가능하면 선한 구조를 만들어 자신을 그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스스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지레 경계하고 견제한다. 영웅사관은 역사를 우연에 맡기자는 것이지만, 사람은 오고 가되 구조는 남는 것, 인류가 토구(討究)해 온 그 선한 장치의 하나가 민주주의일 터이다. 정치 선진국이란, 사람이 주체적으로-즉 민주주의라는 장치를 통해-역사에 관여해서 우연에 따른 재앙의 가능성을 될수록 줄여 온 나라일 것이다.

당연히 민주주의가 불완전할수록 영웅의 출현을 고대하며, 포퓰리즘의 선동에 쉽게 넘어간다. 다수를 동원해 자행하는 횡포가 여기서 멀지 않음은 자명하다. 17세기 중엽 왕권신수설을 고집하며 왕정복고를 외쳤던 로버트 필머(Sir Robert Filmer, 1598~1653)는 "다수의 폭정에 비견할 폭정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훗날 자유주의자로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주창했던 민주주의 대 이론가 존 S. 밀 또한 다수의 압제를 누구보다도 경계했다.

특히 밀은 다수를 업은 정권의 횡포 못지않게 여론이 가하는 강압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에 따르면 사고와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선이야말로 진리를 박해하는 큰 요인이다. 침묵을 강요당한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가능성은 상존하며, 적어도 진리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다수의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데다, 다수가 옳을 때라도 토론과 비판을 거치면서 다수 의견의 정당성은 더 강화되리라는 혜안이다. 정치가 SNS의 준동과 공격적 팬덤 뒤에 숨어 일상적으로 진영 논리를 부추긴다면, 정권의 시작은 창대해 보일지 모르나 그사이에 정치문화는 뭉텅뭉텅 퇴행할 것이다.

운동은 날것 그대로 정치에 심어지는 것이 아니며, 촛불 정신이 아무리 숭고해도 그것이 구체적인 정치 의제에 포섭되는 과정은 복잡하고도 지난하다. 더욱이 정권의 명운을 가른 촛불이라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될 터인데, 개혁을 도모하되 촛불을 전가의 보도로 앞세울수록, 쟁점들을 둘러싼 갈등은 진영 논리의 양상을 더해 갈 것이 뻔한 노릇이다.

지루한 합의를 택하라

민주주의 시대는 더 이상 영웅을 요구하지 않거니와, 성숙한 지도자는 자신을 소멸시킴으로써 자청하여 견제의 틀 속에 가두는 법이다. 독단이 만든 선한 체제보다는 지루한 합의를 거친 다소 미진한 개혁이 오히려 낫다. 오만과 견강부회의 악순환은 반민주적 관행을 고착시키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고된 과정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다. 테세우스가 그리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이 된 것은 먼저 스스로 반(反)영웅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NGO칼럼

광주의 길

김 현 영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

길은 왕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혹은 행위의 규범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길은 일반적으로 서울 가는 길과 같이 통행을 위한 공간의 의미로 통용되지만, '다른 좋은 길이 없을까?' 하는 것처럼 방법 방도의 의미로, 때론 정치인의 길, 군인의 길처럼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서 행위규범의 의미로 사용된다.

'광주의 길을 열겠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22일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이하 광주로)는 광주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거창한 타이틀로 출범했다.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40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해 광주에서 사회적, 정치적 독립을 선언했다. 설립 추진 위원들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꺼이 정성을 내놨다. 7개월 만에 추진위원 72명이 참여해 1억5000만 원의 종잣돈을 모아 지금의 '광주로'를 있게 했다.

'광주로'라는 이름에는 '5·18이 50주년을 맞는 2030년에는 5월 광주가 꿈꿨던 광주를 만들어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부터 광주가 '광주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다. 남은 15년을 설계하고, 시민들 속에서 광주의 의제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광주의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과 연구가 만나 광주형 제도를 만들고,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실현해 나간다.

기존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의식을 토대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광주의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과 이론을 결합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해 지역 경영의 신진 주체로 발돋음하고, 세대와 세대간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광주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로는 사람들이 들고 나는 공간 플랫폼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도를 찾아가는 역할과 함께 광주가 민주화와 인권 도시의 표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체된 정신과 진부한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진행할 것이다.

지역 변화를 위한 모색에서 필수적인 분야는 지역 정치 영역이다. 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사회 적폐 세력 청산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켜켜히 쌓인 부정과 비리 척결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앙 정부 차원의 적폐 청산보다 어려운 것이 지방 정부 차원의 부패 기득권 세력 청산이다. 지역은 학연, 지연, 이익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적 관계로 인해 익명성에 기초한 적폐청산 추진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중앙 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구성되고, 촛불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적폐 청산에 일로 매진하는 것처럼 지방 정부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촛불 지역 정부를 창출해야한다. 하지만 지역 민심은 출렁거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갖는 광주의 정치적 상징성 실현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 욕망이 공존으로 인한 이유이다.

광주는 광주다워야 한다. 광주의 정체성은 민주와 인권 실현의 시대적 사명의식을 투철히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왔다. 이는 오늘을 사는 광주 시민과 내일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광주의 자양분이다. 민주와 인권의 브랜드화와 이를 통한 먹거리 생산, 더불어 대량 소비와 파괴 방식의 발전이 아닌 공유와 재생 방식의 발전과 시대를 이끌어 갈 4차 산업의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관료화된 행정 사회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민의 통제와 민의 리더십 필요성으로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있다. 지금은 그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 보아야 할 때이다.

지난 2년간 광주로는 다양한 실험적 사업들을 진행하며 소정의 결과를 얻었다. 올해는 지난 2년 간의 실험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들을 정교히 다듬어 광주로의 브랜드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새로운 영역의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통한 광주로의 진로도 모색한다. 정책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청년 활동 지원, 안정적 재원 구축 및 회원 소통, 지역 연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광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광주로는 시민들이 왕래하는 통로로, 새로운 길의 방도, 지켜야 할 광주 가치의 길로 시민들과 동행할 것이다.

기 고

꽃과 인생

양 홍
수필가·목사

이 대륙의 산야가 또 청록색으로 변장해 가겠다. 매화로 시작하여 목련, 개나리, 수선화, 산수유, 벚꽃, 진달래 가지가지 꽃들이 색색으로 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인생은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정직한 생활을 다짐하게 된다.

꽃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다. 흰 꽃은 흰 꽃이기에, 붉고 노란 꽃은 붉고 노란 꽃이기에, 다년생·일년생, 높은 곳에서 피는 꽃이든 낮은 곳에서 피는 꽃이든 모두 좋다. 겹으로 피는 꽃은 진해서 좋고, 홑으로 피는 꽃은 청아해서 좋고, 정원에서 피는 꽃은 다듬어진 미가 좋고, 잡초 사이에서 피는 꽃은 소박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피는 꽃들은 주인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해 준다.

인생은 꽃이다. 피부의 색깔이 어떠하든 사는 지역이 어디이든 인생은 동서남북,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구별 없이 아름다운 것이다.

인생은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살고 있든지 맑은 양심을 받았다. 착한 일을 하면 만족하고, 악한 일을 하면 가책을 받는다. 이것은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고 인간이기에 받아 진 영원한 마음의 저울이다. 이런 양심 때문에 인생은 꽃이다.

사람에게는 이성을 주었다. 그 이성이 인간의 삶을 한없이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집도 토굴에서 오늘과 같은 문화 주택으로 바뀌었고 음식도, 의복도, 교통도, 문화·오락도 모든 발전이 마치 꽃의 질을 변화시켜 더 아름답게 하듯이 꽃의 인생을 더욱 윤택하게 했다.

꽃이 풍우에 꺾이고, 넘어지고, 사람과 짐승에게 짓밟히듯이 인생의 꽃도 약하다. 넘어지면 골절이 되고, 불에 화상을 입고, 차에 충돌하면 산산이 부서지는 질그릇이다. 우주를 정복하는 두뇌를 갖고 있어도 육신이 죽으면 시드는 꽃과 같다.

아! 약한 육신같이 양심도, 이성도, 의지도 약하기 한이 없고 변하고 추해지고 파괴된다. 그러나 꽃은 약해도 아름답다. 인생의 꽃도 약하기에 더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 약하고 꺾이기 쉬운 꽃들, 그래서 대가 약한 봉선화는 울타리 밑을 택해 피었는지 모르겠다. 꽃잎이 큰 나리꽃은 산 속에서 홀로 피는 전통을 지녔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연한 가지에서 피는 꽃들은 바람에 활활 낙엽하며 만족하는 생리를 키웠는지도 모르겠다.

약한 인생의 꽃들은 자신을 피우는 처세와 인생관을 갖고 있으니, 해바라기 해 따라 돌 듯 인생은 하늘을 향해 창조주를 따라 도는 것이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순전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그리고 어머니의 품안에서 안전해 하고, 만족해 하듯, 인생은 창조주의 품에 안전하고 만족하는 꽃이다.

꽃은 향기뿐 아니라 꿀이 있어 벌과 나비들이 날아든다. 향기 있는 꽃에서 열매까지 맺으면 가을은 더더욱 아름답고 풍요롭지 아니한가? 소금이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한다. 꽃의 향기는 추악한 냄새를 몰아내고, 꽃의 꿀은 감미로운 미각을 돋운다. 이런 꽃의 인생들! 추하고 냉정한 찡그린 얼굴들을 몰아내고 미소와 유머를 불러들인다.

입에서 나오는 말 마디마디가 향기가 있고 꿀이 있어 듣는 자들에게 즐겁고 같이 어울려 희망과 용기를 부풀게 한다.

금년에는 유난히 초봄의 기온이 높아 온 산천에 꽃들이 한꺼번에 활짝 피었다. 80이 다 된 우리에게도 이렇게 꽃을 대하면서 희망과 기쁨, 생명을 가득 싣고 찾아온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할 일이다. 우리처럼 황혼의 노을이 짙어가는 노년들에겐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화려함인가, 이것이 마지막 봄이나 되지 않을까 의심스러울 땐 더욱 그렇다.

꽃 속에 살면서 인생의 지루함도 파묻고 노래 부르자. 꽃은 한 번도 그 많은 날들을 바람과 비와 궂은 날을 탓하지 아니하고 피고 지고 또 피고 져 올 봄이 또 왔다.

나의 젊음이 초록 '슈트케이스'를 마차에 싣고 넓어 보이는 길로 다시 올 것만 같다. 꽃, 꽃, 꽃... 삼천리 금수강산 이 땅에 온통 꽃으로 장식될 신비스러운 이 계절, 꽃의 인생으로 살아가자.

社 說

선거철 '문자 폭탄'에 유권자들은 괴롭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문자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예비 후보나 후보 측에서 보내는 홍보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차별적 선거 '문자 폭탄'은 유권자들을 짜증 나게 한다.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로부터 쏟아지는 문자를 볼 때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통장이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정보를 받아간 직후부터 입주민들에게 선거 홍보 문자가 쏟아져 통장 등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문자 발송 자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20명 이상 대량 문자 발송은 총 8회로 제한된다. 수신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후보자들은 대량 문자 발송에 '당선폰'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문자 20건을 클릭 한 번에 보내며 1시간에 100만 명에게 전송할 수 있다. 당선폰 업체들은 '전송 성공한 문자만 과금' 등을 내걸고 성업 중이다. 카카오톡 문자 폭탄도 유권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카톡 메시지는 선거법상 전자우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발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 설치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면서 무심결에 '동의'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가 앱 관리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수백 명의 후보자가 이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지방선거는 출마자가 많아 대선이나 총선보다 심각한 문자 공해를 일으킨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4083건의 선거 문자 신고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시도 때도 없는 문자 공세가 개인의 일상에 불편을 끼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이 도를 넘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발송되는 '문자 폭탄',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개점휴업 4월 국회 또 빈손으로 끝낼 건가

4월 임시국회가 개의조차 못한 채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생·개혁 등 각종 쟁점 법안은 물론 개헌과 추경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제 조찬 회동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회 정례회동에 이어 오찬 회동까지 이어 가며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주제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 연설을 위한 본회의 역시 무산됐고 오늘부터 할 예정이었던 대정부 질문 등 의사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헌안의 경우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 국민투표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상임위에 올라온 안을 전부 논의하자는 주장을 폈으나 한국당 등 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안도 또 다른 쟁점이다. 민주당은 청년 실업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며 부정적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번 임시국회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다. 추경안과 민생 문제에 대해선 여건 야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야 마땅하다. 개헌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는 지방선거만을 의식한 '네 탓 공방'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4월의 눈

몇 해 전 장성 백양사 골짜기에서 눈을 만났다. 도로변 벚꽃이 만개해 화사한 빛깔을 뽐내던 봄날이었다. 잠깐 사이 벚꽃 위로 눈발이 날렸다. 바람이 차가운 줄도 모르고 비현실적인 봄 속 겨울 풍경을 지켜봤다.

며칠 전에도 그랬다. 여러 날 화창한 봄날이 계속되더니만 갑작스레 기온이 뚝 떨어졌다. 광주 남구 사직공원 붉은 철쭉 위로 눈발이 세차게 몰아쳤다. 벚꽃 역시 어지러운 바람에 꽃잎을 마구 흩날렸다.

올해 봄은 유별나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등 온갖 봄꽃이 예전의 개화 순서를 무시하고 거의 동시에 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는 겨울이 오는 봄을 시샘하는 걸까? 찬란한 봄꽃 위로 거짓말 같은 눈발이 쏟아지다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봄비가 곳에 따라 봄눈으로 변했다. 상춘객들은 쌀쌀한 날씨 탓에 패딩을 챙겨 입고 봄나들이에 나서기도 했다. 광주 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3월 평균 기온은 6.9도(2000년)→7.4도(2010년)→8.0도(2015년)→10.0도(2018년)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조선 후기에 '시신'(詩神)으로 불린 중인 출신 시인 희암 현기(1809~1860)는 '춘진일'(春盡日)이라는 시에서 꽃샘바람을 이렇게 노래한다.

"오늘 진 이 꽃은 어제엔 붉었던 것/ 가득하던 봄빛이 거의 다 텅 비었네/ 만약 피지 않았더면 떨어짐도 없었으리/ 봄바람 원망 않고 꽃샘바람 원망하네."(정민 편역 '우리 한시 삼백 수' 중)

'춘진일'은 음력 3월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번역자인 정민 한양대 교수는 이 시에 대해 "…원망할 것 없다. 안타까워할 것 없다. 그저 물 흐르듯 순리대로 살다 갈 일이다"라는 해설을 붙였다.

자연 변화는 순리다. 봄꽃 피는 때에 흩날리는 눈발은 봄기운을 꺾지 못한다. 겨울 끝자락에서 성급하게 꽃을 피웠던 나무들은 이제 낙화와 함께 열매를 맺고, 연두색 새잎을 내밀며, 머지않아 짙은 녹음(綠陰)을 드리울 것이다. 모처럼 대화의 창을 열어젖힌 남북 관계나 가슴 속에 꾹꾹 눌러둬야 했던 4·3과 같은 역사적 진실들이 나무들처럼 온몸으로 '봄'을 맞았으면 좋겠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